



해외양계



동유럽

닭고기 생산 빠른 회복세

'90년초 동유럽(CEEC 10국)의 닭고기 생산은 당시의 사회적 영향을 받아 급속히 감소해 왔으나 최근들어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위원회(EC)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이르러 동유럽의 닭고기 생산이 1,721천톤으로 '89년도 수준인 1,754천톤의 98%수준까지 접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동유럽의 사회기반이 안정화되고 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근거를 둔 것이며 2000년에는 183,000톤의 물량이 과잉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동유럽중 가장큰 닭고기 생산국가는 폴란드인데 2000년도 생산량과 소비량이 각각 455천톤, 494천톤으로 나타나고 있어 생산량이 당분간 부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I)

표. 동유럽의 닭고기 생산과 소비추이

국가 연도	생산량 (천톤)			소비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89	1994	2000	1989	1994	2000	1989	1994	2000
폴란드	362	335	455	343	381	494	9.9	9.9	12.5
헝가리	436	341	420	258	261	284	24.9	25.4	27.8
카자흐공화국	149	124	164	135	119	139	13.0	11.5	13.3
슬로바키아공화국	82	60	76	74	61	69	14.0	11.4	12.5
슬로베니아	73	46	50	51	33	39	27.0	16.6	20.0
발칸반도국	527	342	481	484	382	460	15.2	12.5	14.8
발탁해안국	125	43	75	73	28	53	9.4	3.7	6.9
계	1754	1291	1721	1419	1265	1538	15.3	14.1	16.1
EU15개국	6452	7376	8211	6209	6879	7911	17.0	18.5	20.9

일본

닭의 개량목표 설정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2005년까지 산란계와 육용계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품종개발, 신기술 이용, 사육환경 개선, 사양관리 기술 향상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닭개량사업 목표를 설정하였

다.

표1에서 산란율, 난중, 일산란양, 사료요구율은 성성숙 일령부터 1년후까지의 성적을, 육성율은 150일령까지의 성적을, 생존율은 151일령부터 1년후까지의 성적을, 체중은 10개월 시까지의 성적을 각각 측정한 것이며, 표2에서 체중, 육성율, 사료요구율은 51일령시 측정한 성적이다. (鶴鳥)

표1. 산란계의 능력에 관한 목표수치(전국평균)

구 분	산란율 (%)	평균 난중 (g)	일산 란양 (g)	성성숙 일령 (일)	육성율 (%)	생존율 (%)	체중 (g)	사료 요구율
현 재	78	62-63	48-49	155-160	97	86-90	1,700-1,900	2.2-2.3
목표(2005년)	82	62-63	51-52	155-160	97 이상	90 이상	1,700-1,900	2.2 이하

표2. 육용계의 능력에 관한 목표수치(전국평균)

구 분	체중(g)	육성율(%)	사료요구율
현 재	2,400	96	2.1
목표(2005년도)	2,700	98이상	2.1이하

일본

액상난각 칼슘 시판



일본의 큐피사는 계란의 난각을 가공하여 액상 난각 칼슘 제인 원기 넘치는 뼈란 상품을

개발하여 '96년 2월 19일부터 전국 수퍼와 미곡상을 통해 시판에 들어 갔는데 쌀로 밥을 지을 때 직접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차, 기타 음식을 만들 때 섞어서 손쉽게 이용하도록 제품화하였다.

닭이 부화될 때 계란의 껍질을 통하여 칼슘을 공급받아 뼈를 형성시킨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액상과 함께 분말 제품도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사용법은 쌀 2홉(160g)에 본제 10ml를 섞고, 차 1잔에는 100mg을 넣어 이용하면 되는데 난각이 우수한 것을 원료로 하여 섭취 후 흡수가 잘되며, 특히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현대인에게 인의 과잉섭취를 막아 부족되기 쉬운 칼슘의 공급에 효과를 높였는데 판매 가격은 소매 기준(세금제외)으로 1상자(10ml×20포)당 400엔이다. (鶴鳥)

태국

CP그룹, 베트남에서 수출용 닭고기 생산

태국의 최대 닭고기 생산공급업체인 CP그룹이 일본 등 아시아의 수출을 목표로 베트남에서 수출용 닭고기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제3의 닭고기 수출국으로 베트남이 시장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CP그룹은 이미 베트남에 사료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계장 건설 등 일관생산체제를 갖춰 5년 이내에 닭고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이것이 순조로울 경우 2000년부터는 베트남이 새로운 닭고기 수출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WP)